



KIA 장성호가 4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한화와의 경기에서 2회말 정민철의 직구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홈런을 때리고 있다. /니평기자 mjna@kwangju.co.kr

# '해결사' 장성호 통쾌한 만루포

'주장의 한 방, 비운의 에이스를 구하다'



KIA 타이거즈가 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주장 장성호의 만루홈런을 앞세워 6-1로 강우 콜드승을 거두었다.

지난해와 올해 상대팀에 가장 많은 그랜드슬램을 헌납한 KIA는 1년 만에 터진 만루야치 맛을 봤다. KIA는 지난해 터진 만루포 20방 중 6방을 두들겨맞았고, 올해 11방 중 5방을 허용했다.

KIA가 만루홈런을 친 것은 지난해 5월15일 수원 현대전에서 마지막이었고, 그날 노환

KIA, 한화에 7회 강우 콜드승
'비운의 에이스' 이대진 시즌 2승

수로부터 그랜드슬램을 뽑아낸 게 바로 장성호였다.

장성호는 이날 2-0으로 앞서가던 2회 말 2사 주자 만루에서 한화 선발 투수 정민철의 4구째 몸쪽 높은 직구(시속 142km)를 잡아당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115m 야치를 그려냈다. 개인 통산 6호이자 올 시즌 8개 구단을 통틀어 11번째 터진 만루포였다.

지난달 25일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24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장성호는 이날 경기까지 33타수 14안타로 0.467의 타율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복귀 이후 홈런도 2개를 때려내면서 소속구단 KIA타선에 힘이 실렸다.

7회 말 오라카라하던 빗줄기가 끊어지면서 결국 KIA는 6-1로 강우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1회 초 야수 실책으로 1사 1,3루의 위기를

맞았던 선발 이대진은 위기를 무사히 넘긴 후, 6이닝을 6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내며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올 시즌 8경기에 나서 3.9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6패를 챙기는데 만족해야 했던 비운의 에이스 이대진은 장성호의 한방에 힘입어 지난달 11일 이후 간신히 승수를 추가해 시즌 2승째를 올렸다.

한편, LG 트윈스-삼성 라이온즈(잠실), SK 와이번스-우리 히어로즈(문학)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전은 두산의 1회 초 공격 1사 1루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져 경기가 중단됐고 30여 분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 첫 노게임이 선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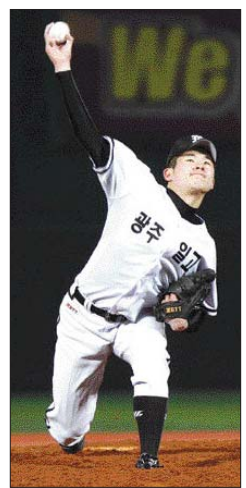
## KIA, 광주일고 정성철 '찜'

### 프로야구 신인 1차 지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009년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황금사자 최우수선수 출신인 투수 정성철(18·광주일고·사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성철은 신장 185cm, 몸무게 84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우완 정통파 투수로 직구 최고구속 143km에 커브와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질의 변화구를 던질 줄 안다고 KIA측은 설명했다.

3월에 열린 제62회 황금사자교 야구대회에서 팀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로 뽑히는 등 올해 5경기에서 26과 3분의 2이닝 동안 12피안타 36탈삼진 1



실점(자책)으로 2승무패, 평균자책점 0.34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히어로즈는 좌완 투수 강윤구(18·장충고)를 1차 지명했다.

강윤구는 140km대 중반의 강속구에 변화구를 섞어 던질 줄 알고 제구력을 갖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한화 : KIA)(18 : 00·SBS스포츠), (LG : 삼성)(18 : 20·XSPORTS), (SK : 우리)(17 : 30·KBS N SPORTS), (롯데 : 두산)(18 : 30·MBC ESPN)
▲2008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준결승(22 : 00·MBC ESPN)
6일 (금)
▲2008 PGA 스탠포드 세인트루드 챔피언십 1R(04 : 30·SBS스포츠·SBS골프)

## 팬 외면한 '빗 속 추태'

### 광주구장 우천경기

한화, 노게임 작전...고의 실책

KIA, "빨리 끝내자" 억지 삼진

'스포츠팀인가, 코미디인가?'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벌어진 4일 무등경기장에서는 볼썽사나운 '진기명기'가 연출됐다.

KIA의 초반 공세로 6-1까지 점수가 벌어진 3회, 검은 구름이 몰려오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자 양팀 선수들은 돌연 '이상한 플레이'를 시작했다. 5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KIA입장에서는 일단 5회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 이긴 경기를 우천 노게임으로 놓칠까봐 마음이 다급해졌다. 선발 정민철의 난조로 만루홈런까지 내준 한화는 '당연히(?)' 지연작전에 들어갔다.

결국 5회를 놓고 양팀 행보는 정반대로 엇갈렸다. 빗방울이 끊어지기 전에 5회를 넘기려는 KIA타자들은 공도 보지

않고 타석에서 헛스윙하기에 바빴다. 앞선 2회까지 6개의 안타(1홈런)와 3개의 볼넷으로 6점을 뽑아냈던 KIA타자들은 3, 4, 5회 5개의 삼진을 당하며 돌아섰다.

발 빠른 이용규는 4회말 투수의 늑장수비로 내야안타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안타 대신 땅볼 아웃을 선택하며 팀 승리를 위해 자신의 기록을 희생(?)했다.

4회말 KIA 공격 때 한화 투수 마정길은 앞서 만루홈런을 쳤던 장성호가 방망이를 놓쳐다 맞춘 땅볼을 잡는 척하다가 살짝 지나쳐 에러를 기록했다. KIA 공격을 연장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였다. 4회말 공격에서 KIA 이재주는 볼과는 전혀 상관없이 방망이를 휘둘러 삼진을 자처했다. 관중석에서는 야구가 쏟아졌다.

요란한 천둥번개속에 비는 오락가락하면서 5회가 넘어가자 프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던 선수들은 6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라운드를 누비며 경기를 이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제37회 소년체전 결산

### 광주 '전략종목 부진' 추락 원인 전남 우수선수 특별 관리 결실

대회 홍보 부족·미숙한 경기 운영 아쉬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4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소년체전은 개막식 행사에 평소 학교에서 하던 수업내용을 무대에 올리는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청소년 체육축제라는 의미를 충실히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성적 면에서 광주는 전략종목 메달 획득 부진으로 목표인 종합 3~4위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전남은 지속적인 투자와 체육지도자들의 정성어린 조련 결과 역대, 불링 등의 선전으로 종합 5위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이와함께 광주시가 '201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온 힘을 쏟는 바람에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기가 오르지 않고, 일부 경기가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해 아쉬움도 남겼다.

광주 = 우수선수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지난해 다관왕을 획득했던 종목들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각각 6개의 금맥을 쫓던 양궁, 역도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해 전략종목 육성 실패가 순위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에서 2년 연속 단 한 개의 금메달도 획득하지 못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3일 대회 마지막 날 단체종목에서 7개의 금맥을 캐내 위안을 삼았다.

광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초종목인 육상과 수영, 개인대진 종목인 유

도, 씨름, 복싱 등에 대한 메달 획득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전남 = 금 나을 곳에 제대로 투자한 '선택'과 '집중'이 돋보였다.

역도 이한승(보성중 3년)과 최다혜(보성여중 3년)가 각각 3관왕에 올랐으며 강태욱(나주초 6년), 이영승(곡성중 1년), 남승우(금성중 3년) 등이 2관왕에 올라 전남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전남의 성적향상은 전담체육코치 처우개선과 기술교육을 위한 코치 연수회를 통해 지도력을 향상시켰으며 우수선수를 특별관리하고 전국대회 출전을 격려해 실전감각을 키운 것도 큰 힘이 됐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22개 종목에서 입상을 했으나 올해는 32개 종목 중 27개 종목에서 입상해 종목 다변화를 이룬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대회운영 = 광주시민 대다수는 소년체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에도 소년체전 개최를 모르는 등 홍보부족이 여신했다. 전북에서 온 한 태권도 선수 부모는 "광주에 도착해서 소년체전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 플래카드를 더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라인 경기장에서 선수끼리 충돌사고가 발생, 선수가 구토를 하고 있어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각 경기장의 미숙한 운영에 대해 대회 참가자들의 불만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53m22를 던져 2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이연경(안동시청)이 기록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연경 한국新 던졌다

女 원반던지기 53m22...24년만에 경신

### 전국육상경기 선수권

한국 육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 묵은 여자 원반던지기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이연경(27·안동시청)이 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53m22를 던져 1984년 김선화(당시 동원탄화)가 세운 51m64를 24년 만에 넘어서고 우승했다.

29년된 남자 100m(10초34), 23년된 남자 200m(20초41)와 함께 해묵은 기록을 깨뜨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산시청)가 61m50를 던져 지난 2월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60m58)을 약 1m 경신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남자 100m는 이번에도 기록 경신에 실패했다.

지난달 종합대회 100m와 200m를 휩쓴 전덕형(24·대전시체육회)이 10초65로 라이벌 임희남(24·광주광역시청)과 여호수아(21·성결대)를 따돌리고 우승했지만 자신의 최고기록(10초48)에도 못미쳤다.

여자 110m 허들에서 또 다른 이연경(27·울산광역시청)은 13초30으로 정상에 올랐지만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13초23)에는 100분의 7초 모자랐다.